**BNP Paribas – Fixed Income Sales**

포지션: Full-time

지원방법: 서울대 경영대학 게시판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

회사위치: 시청역 태평로 빌딩 22~25층

**First-Round**

**면접관: Fixed Income Marketing 부장 (30분 / 한국어60% 영어 40%)**

BNPP HR에서 연락이 와서 전화 인터뷰 시간을 사전에 정했습니다. Fit & Competency 위주였고 마지막엔 부장님께서 자신의 열정을 보여 달라면서 제 자신의 Sales Pitch를 요구 하셨습니다.

**Second-round**

**면접관: Fixed Income Marketing 상무, 부장 (40분 / 한국어)**

좀 젊게 보이는 상무님께서 들어 오셨습니다. 초반에는 Fit & Competency 위주의 질문을 하셨고 후반부에 들어서는 technical. 우선 종이랑 펜을 주고 질문을 3개 하셨고 준비 시간으로 약 3분을 주시더군요. 3분 동안 2분은 밖에 나가시고 저 혼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종이에 끄적끄적..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질문 3개가 대충 이랬습니다.

* 내가 NPS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간다. 당신이라면 어떤 투자상품을 권하겠는가?
*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?
* 당신이 정부 고위 경제정책 담당자이고 금리 또는 환율 중 한 방법을 쓸 수 있다. 어떤 방법을 쓸 것이며 그 이유는?

쓰고 보니 질문들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저런 내용 이었습니다. 질문 3개, 준비시간 3분, 발표

결과는 탈락. 부장님께서 그래도 경쟁력 있는 candidate라고 하시면서 다른 부서로 이력서를 전달 했다고 하시더군요. BNPP랑 인연이 없나 봅니다.